

화시와 맥락 그리고 합성성의 원리에 관하여* **

김진웅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HK사업단)

<Abstract>

Kim Jinung. 2014. Indexicality, Context, and the Principle of Compositionality. *Korean Semantics*, 45. Formal semantics is based on the system in which the semantic value of proposition is decided according to the model. In addition, The content consisting of proposition is controlled by linguistic rules. This procedure falls into semantics. The content related to context is controlled by a speaker's intent. This belongs to pragmatics. The principle of compositionality says that the meaning of a whole is meanings of parts. In fact, both descriptivism and referentialism cannot fully explain the indexicality. There are two main reasons. Descriptivism cannot decide the semantic value of indexicals because they are the content of proposition and are also affected by context. On the other hand, referentialism is restricted by the doctrine that the meaning of indexical should come from the referent. We conclude that indexicality and the principle of compositionality can be appropriately explained by adopting the context as an extra argument.

핵심어: 화시(indexicality), 맥락(context), 명제(proposition), 합성성의 원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27).

** 논문을 심사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에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은 필자의 책임이다.

리(the principle of compositionality), 기술주의(descriptivism), 지시주의(referentialism)

1. 머리말

화시(Indexicals)¹⁾는 그 진리값이 화맥(context of utterance)에 의하여 결정되는 언어표현이나 그 의미 해석이 일정 부분 화맥에 의존하는 일련의 범주(class)를 가리킨다(Recanati 1988; Kaplan 1989; Nunberg 1993). 한국어에서는 ‘나, 지금, 여기, 이, 그, 저’ 등이 화시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화시는 20세기 벽두부터 서서히 언어철학의 전통 아래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된 이후에 Kaplan(1989)의 기념비적인 연구를 기점으로 학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연구 분야이다. 영미권에서 화시에 대한 논의는 언어철학의 전통을 기반으로 의미론과 화용론을 아우르며 활발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철학적, 언어학적, 그리고 인지과학적인 측면을 통섭하는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화시는 기술주의(descriptivism)이나 직해주의(Literalism)로 이해할 수 있는 Frege의 언어관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겨준다. Frege의 이론에서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는 언제나 의의(sense)이고 의미의 해석은 의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화시는 Frege의 의의 개념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²⁾. 그 이유는 화시는 명백히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그 의미가 맥락(context)과 화자

1) 본고에서는 박철우(2011)를 따라, 영어의 ‘Deixis’와 ‘Indexicality’에 해당하는 개념과 영어권 논의에서의 번역어로 **화시**를, ‘Deictic expression’이나 ‘Indexicals’에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들과 영어 표현들을 위해 **화시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민경모(201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화시**와 **직시**는 한국어 ‘Deixis’의 연구에 있어서 번역어의 지위를 두고 경쟁 관계를 유지해 왔다. 본고에서 **화시**를 번역어로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Deixis’가 본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행위’라는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본고에서 소개하고 있는 Kaplan(1989)의 이론의 경우에 ‘대상을 가리키는 행위나 화자의 의도’가 배제된 화시(순수화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러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화시**가 더 적절한 용어라고 보았다. 최근에 **화시**에 관한 개념 정립의 어려움과 번역상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민경모(2011)에서, 그리고 한국어 **화시**의 하위 유형 등에 대해서는 박철우(2011)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

2)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3.1에서 기술하였다.

의 의도(intent)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Frege의 언어관에 대척점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주장이 Mill과 Russell로 대표되는 지시주의(referentialism)이다. 지시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화시가 해석되는 방식은 직접적(direct)이다. 다시 말하면, 지시주의자들은 화시의 의미가 곧 지시체이며 둘 사이에 매개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설명 역시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화시 역시 언어표현 가운데 하나이며 어휘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Russell의 지시주의는 화시의 어휘의미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설명하지 못한다. 오늘날까지 화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며 기술주의를 표방하는 연구자들과 지시주의를 추종하는 연구자들은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화시의 해석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자들의 관점을 제시하고 각 이론의 장점과 한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시주의와 기술주의 가운데 화시의 연구에 있어서 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연구 방법론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것이다.

화시(Indexicals)의 이중적 성격-화자의 의도(intent)를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명제의 일부로 해석이 가능한-은 의미론을 떠받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에 대하여 의구심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전통적으로 의미론에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은 그 문장의 내용(content)에 해당하는 명제(proposition)의 진리값을 하나의 모델 안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의미 해석은 합성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compositionality)를 근거로 삼는다. Partee(1984: p.281)에 의하면, 합성성의 원리는 문장성분이 논항과 함수 관계를 반복적으로 충족시키며 문장을 이루는 것에 대응하여 각 문장성분의 내용(content)이 논항과 함수 관계를 반복적으로 충족시켜 최종적으로 명제를 구성하는 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이다. 또한 합성성의 원리에 의해 해석되는 내용과 그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흔히 의미론과 화용론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인식되곤 하였다³⁾.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문장의 진리값을 합성성에 의해 결정하는 역할이 의미론에 부여된 것이며 화자의 의도(intent)와 관련된 것은 어떤 문제라도 화용론에 포함된다. 그런데 합성성의 원리가 자연언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3) 의미론과 화용론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은 Levinson(1983) 1장을 참조.

운데 하나가 화시이다.

2. 화시의 특성

2.1 화시의 고정의미와 화맥

화시표현은 각각의 발화마다 다른 지시체를 가리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시표현의 고정의미(*conventional meaning*) 혹은 어휘의미(*lexical meaning*)를 기술하는 일은 가능하다. 몇 가지 예를 확인해 보자.

가. 나: 발화의 화자.

나. 나: 발화의 청자.

다. 여가: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라. 오늘: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 포함된 날.

Perry(1977)와 Davies(1982: p.289)의 논의에 따라 두 명의 화자가 동일한 발화를 생성시킨 경우를 가정해 보자.

(1) 가. 경민 : $내_1$ 가 일등이야.

나. 호영: $내_2$ 가 일등이야.

위의 예문(1가)와 (1나)에서 경민이와 호영이의 발화는 완전히 일치한다. 발화를 구성하는 화시의 고정의미와 그와 결합하는 술어부의 어휘의미가 완전히 일치한다. 그런데 (1가)와 (1나)의 명제의미는 상이하다. 다음 예문을 보자.

(2) 가. 이 발화의 화자가 일등이야.

나. 경민이가 일등이야.

다. 호영이가 일등이야.

(2나)와 (2다)가 공유하고 있는 화시의 고정의미를 반영한 해석은 (2가)에 해당할 것이다. (2가)처럼 화시의 고정의미에 해당하는 해석을 Davies는 화시의 내재적 내용(*intrinsic content*)이라고 명명하였다. 하지만 청자가 화시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화시의 고정 의미가 가리키는 실제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밝혀져야만 온전히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발화의 화자가 경민이나 혹은 호영이냐에 따라 (2나)와 (2다)의 진리 조건은 달라질 것이며, 각각의 진리값은 차이가 날 것이다.

‘내가 일등이야’라는 발화가 학교 교실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청자는 이 발화를 청각적으로 인지하였으나, 발화가 청자의 뒤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발화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 수십 명이 함께 생활하는 교실에서 화자가 경민인지 호영인지 혹은 다른 인물인지, 청자는 파악할 수가 없다. 청자가 화시에 해당하는 화자를 파악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정확한 의미전달과정이 수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Davies는 실제 세계에서 화시가 가리키는 대상을 지시적 내용(*referential content*)이라고 불렀고, (2나)와 (2다)가 화시의 고정의미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명제가 되는 이유는 그 지시적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화시를 완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화시의 고정의미(내재적 내용)와 화시가 가리키는 대상(지시적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Davies는 화시의 내재적 내용과 화시의 지시적 내용을 통틀어서 화시의 외재적 내용(*extrinsic content*)이라고 불렀다. 이상으로 본고에서 화시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언급이 될 개념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3장부터는 Frege, Russell, Kaplan, Nunberg의 화시에 대한 논의들이 각각 화시의 내재적 내용과 지시적 내용, 그리고 외재적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화시의 인지적 역할(*cognitive roles*)

화시의 인지적 역할(*cognitive roles*)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de se*를 확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de se*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수

의 철학자들(Castaneda 1967; Lewis 1979; Perry 1979)은 전통적으로 대상(object)에 대한 지식(knowledge) 혹은 믿음(belief)의 관계를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de dicto*는 지식만으로 구성되며, 형식적으로는 기술(description)의 형태를 띤다. *de re*는 인식(perception)을 통해서 얻은 면식(acquaintance)⁴⁾을 포함한 지식이다. 따라서 *de dicto*와 *de re*는 전통적으로 명제 구성의 영역에 속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Perry(1979)에 의하면 내용(content)이나 믿음의 대상(object of the belief)과 그 내용에 접근하는 믿음의 상태(belief state)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Perry(1979: p.3)의 화시에 대한 유명한 예화는 찬찬히 살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나’는 슈퍼마켓의 복도에 뿌려져 있던 설탕의 흔적을 쫓아 간 적이 있다. ‘나’는 높이 솟아 있는 진열상품들 사이의 한쪽 복도에서부터 카트를 밀고 반대편 복도로 돌아갔다. 찢어진 설탕 봉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가 매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코너를 돌아갈 때마다 설탕 가루의 양은 늘어났지만 ‘그’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한 순간 깨달음이 밀려왔다. ‘내’가 따라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나’였다⁵⁾.

Perry는 최초로 ‘어떤 고객이 매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했다. Perry의 그 생각은 옳았다. 그러나 Perry는 여전히 ‘내(Perry)가 매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믿지는 않았다. Perry가 ‘내가 매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믿는 순

4) Russell의 이론에서 지식(knowledge)은 사고(mind)와 사고 바깥의 사물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자체이다. Russell은 이 관계를 면식(acquaintance)라고 불렀다. 면식이 없으면 외부 세계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 Russell의 직접 지시주의의 핵심이다. 상세한 내용은 3.2 참조.

5) 이 이야기는 원래 아기곰 푸우가 사냥을 나섰다가 자기 발자국을 사냥감의 것으로 착각하고 따라간 동화(Pooh and Piglet Go Hunting and Nearly Catch a Woozle)를 차용한 것이라고 한다(Holton 2012). 따옴표는 필자가 강조를 위해 추가하였다. Perry(1979: p.3)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 once followed a trail of sugar on a supermarket floor, pushing my cart down the aisle on one side of a tall counter and back the aisle on the other, seeking the shopper with the torn sack to tell him he was making a mess. With each trip around the counter, the trail became thicker. But I seemed unable to catch up. Finally it dawned on me. I was the shopper I was trying to catch.

간에 비로소 다른 고객을 쫓아가기를 그만두고 자신의 카트에 있는 설탕 봉투의 찢어진 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Perry가 깨달음 이전과 깨달음 이후에 행동을 변화하게 만든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Lewis(1979)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Perry가 자신(self)의 행동과 자신(self)을 일치시키는 순간을 *de se*(라틴어로 ‘자신의’란 의미)라고 명명하였다. *de se*에 대한 사고는 필연적으로 화시의 해석에서 드러나는 특수성을 보여준다. 아래의 예를 보자.

(3) 가. 내가 화가이다.⁶⁾

나. 김영수가 화가이다.

예문 (3)에서 나와 김영수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면, (3가)와 (3나)가 동일한 사태를 묘사하는 두 발화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3가)와 (3나)는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두 발화는 인지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문 (3)에서 김영수는 사고로 인해서 기억상실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⁷⁾. 영수가 자신의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으면서 자신의 직업만이 기억이 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가 있다. 이 경우에 (3가)는 적절한 발화이지만 (3나)는 부적절한 발화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영수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김영수란 이름의 화가의 존재에 대해 기억을 해낸다면, (3나)는 적절한 발화지만 (3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이 예문들에서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화시와 이름이 모두 지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 즉 인지적 의미(cognitive significance)⁸⁾의 차이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3가)와 (3나)는 동일한 명제이지만, 의미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기존에 형식의미론에서 받아들여 온 진리조건의미론을

6) 본고의 예문에서 ‘*나*’는 지시체가 동일함을 나타낸다.

7) 이와 유사한 가정은 Perry(1979)와 Schlenker(2003)에서 논의된 바 있다.

8)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지적 의미*라는 용어는 Frege 이론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리킨다. Frege에게 있어서 *인지적 의미*가 *의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물론 이 경우에 *인지적 의미*는 명제의 구성요소가 된다.

위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동일한 명제가 동일한 세계에서 다른 진리값을 갖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명제에 해당하는 믿음의 대상만이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상태 역시 의미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3. Frege의 기술주의와 Russell의 지시주의

3.1 Frege의 의의와 화시의 해석

Frege(1892)의 의의⁹⁾ 개념은 널리 알려진 대로 두 가지의 중요한 주장을 중심으로 한다. 첫째, 모든 언어 표현은 대상을 언제나 의의(sense)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시한다. 예를 들면, 고유명사의 의의는 한정 기술의 의의와 유사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인지하고 있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는 누군가에게는 ‘플라톤의 제자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가리키는 인물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스타기라에서 태어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을 가리키는 인물일 수도 있다. 이를 정리하면, Frege에게 의의가 곧 의미라고 규정할 수 있다.

(4) 가. 정지훈은 정지훈이다.

나. 정지훈은 비이다.

(4가)과 (4나)에서 정지훈과 비는 모두 ‘한류 가수이자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활동하는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지만 두 표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정지훈은 그 인물의 본명이며 배우활동을 할 때에 사용하는 이름이고 비는 가

9) 의의를 정의하는 작업은 본고의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Frege가 제시한 의의의 역할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Frege는 의의가 언어표현의 의미를 담당하는, 즉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동시에 의의는 인지적 역할-화자가 표현을 이해할 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 과 동일하게 취급이 된다. Perry(1993)은 의의에 이처럼 두 가지 역할을 부여한 점이 Frege의 의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필자 역시 화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의의의 개념이나 역할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수로 활동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다. 그런데 (4가)를 참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적 요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즉 (4가)를 참으로 인식하는 원인은 선험적(a priori)인 판단으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4나)를 참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귀납적(posteriori) 지식이 요구된다. 즉 정지훈과 비가 동일인물이라는 실제 세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인지적 정보(cognitive information)를 해석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4나)의 의미를 결정하는 일이 가능하다. 만약에 의미의 해석이 지시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4가)와 (4나)는 정확하게 같은 의미를 지니는 발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발화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이 점은 다음 예문을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 (5) 가. 윤희는 정지훈이 정지훈이라고 믿는다.
 나. 윤희는 정지훈이 비라고 믿는다.

위의 예문에서 (5가)를 참으로, (5나)를 거짓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일반화시켜 기술한다면, 명제 태도(propositional attitude) 문맥에서는 의미의 해석이 지시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rege는 역시 의의를 제시한다. Frege의 의의에 관한 두 번째 주장은 다음과 같다. 명제 태도(propositional attitude) 문맥에서 나타나는 모든 표현은 그 외연(denotation)을 지시하지 않고 그 의의(sense)를 지시한다. 이상의 Frege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의의는 고유하게 지시를 결정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¹⁰⁾.

이제 Frege의 의의와 지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의 주된 관심사인 화시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2.1.에서 화시는 고정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화시의 고정의미를 의의와 동일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화시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고의 4장에서 제시할 Kaplan 이론의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가 화시의 고정의미는 Frege의 의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¹¹⁾.

10) Frege의 이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May(2006)를 참조하기 바란다.

11) 이러한 까닭으로 Kaplan은 화시의 고정의미를 배역(character)으로, Perry는 역할(role)로 불렀다.

2.1에서 Frege의 의의의 후보에 해당하는 대상이 이미 제시되었다. 하나는 화시의 고정 의미이고 또 하나는 화시의 지시대상이다. 화시의 고정 의미를 화시의 의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Frege가 일찍이 의의를 설명한 내용에서 비롯된다. Frege는 의의가 일종의 기술(description)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박근혜를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라고* 기술한 내용이 곧 의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를 이 발화의 화자라고* 기술하는 내용이 의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렇다면 *나의 의의를 이 발화의 화자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까?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예문 (1)을 다시 살펴보자.

(6) 가. 경민 : $내_1$ 가 일등이야.

나. 호영: $내_2$ 가 일등이야.

Frege가 주장한 의의와 지시의 관계를 고려하면 화시의 고정 의미를 의의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Frege의 이론에서 지시가 다르다는 것은 의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미 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6)에서 화시표현인 *나*는 그 고정 의미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화자에 의하여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 다른 지시를 갖는다. 화시의 고정 의미를 Frege의 의의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시를 고유하게 결정해야만 한다. 이미 밝혔듯이, 화시의 지시대상이 다른 이유는 고정 의미의 차이가 아니라 화맥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정 의미를 화시의 의의라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만약 화시의 고정 의미를 Frege의 이론 내에서 의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각각의 지시체로부터 화시의 의미가 결정될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6)에서 경민과 호영이 달리기 시합을 했고, 경민의 승리가 실제 세계의 결과라면, (6가)는 참이 되고 (6나)는 거짓이 된다. 이 경우에 (6가)와 (6나)는 각각 다른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참과 거짓이 결정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의미가 화시의 고정 의미에서 오지 않고 화시의 특정한 지시대상에서부터 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최소한 Frege의 이론 안에서는 용납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의의가

지시를 결정한다는 그의 주장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결과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언어 표현은 대상을 언제나 의의(sense)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시한다는 Frege의 주장은 화시의 해석에 합성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부분의 합이 전체를 이룬다는 가정 아래에서 문장의 의의에 해당하는 진리값은 문장의 부분의 의의에 의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예문 (6)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6가)와 (6나)가 다른 진리값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의 유력한 후보인 화시의 어휘의미는 동일하다. 하지만 합성성의 원리에 비추어 부분의 의미는 같지만 전체의 의미는 다르다는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화시의 지시 내용을 명제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은 의의와 지시의 엄격한 분리에 입각한 프레게의 합성성 원리를 훼손하게 된다. 이 역시 용납하기 어렵다. 결국 프레게 이론 안에서 합성성의 원리를 화시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화시에 대한 프레게의 견해는 무엇이었을까? Frege(1892: p.163-164)는 “화시를 전체와 더불어 자연언어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표현 가운데 하나”로 보았다¹²⁾. Frege가 화시 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극히 드물지만 Frege(1979: p.213)는 화시에 해당하는 표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Frege가 영어의 ‘this man’에 해당하는 복합화시 표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론 “이 사람”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여러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각각의 경우에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언어의 문장은 추측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주변 상황 덕분에 정확한 추측을 할 수 있다. 내가 발화하는 문장이 언제나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에 맥락(the context), 제스처, 시선 등에 의해 그 결핍이 보강이 된다. 그러나 과학적 용도로 사용되는 언어는 추측의 여지란 용납될 수 없다¹³⁾.

12) 하지만 이러한 화시의 불완전성은 자연언어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성질로 받아들여졌다. Frege에게 ‘언어’란 논리적 형식언어이지, 불완전하고 뒤죽박죽인 자연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3) 이 인용문은 Frege(1979: p.213)을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Frege는 화시가 자연언어에서만 나타나는 불완전한 특성이기 때문에 완벽한 성격을 가진 논리언어에서는 제외시켜야 할 요소로 이해하였다. Frege는 화시를 언어의 연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그의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3.2 Mill, Russell 그리고 단칭명제

Mill은 비록 자신이 화시에 관한 직접적인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제시한 지시주의(referentialism)에 입각한 관점은 Kaplan을 비롯한 후대의 화시 이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언급하고 넘어갈 가치가 충분하다. Mill의 주된 관심의 대상은 주로 이름(name)이었다. Mill(1843: p.20)은 이름(name)이 지시체에 곧바로 덧붙는 것이지 지시체의 속성(property)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Mill은 고유명사가 어떤 기술적(descriptive)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Mill에게 이름은 하나의 꼬리표(tags), 즉 대상(object)을 가리키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사물의 이름은 사물의 이름으로 작용할 뿐이지 사고(thought)의 이름일 수 없다는 것이다¹⁴⁾. 또 하나 Mill의 중요한 인식은 지시의 본연의 성격은 명제의 참이나 거짓을 결정하는 과정과는 아무런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이후에 등장하는 직접지시 이론에서 지시체(referent)를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로 인정하는 경향과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낸다.

Russell(1912)의 명제 이론을 상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명확히 밝혀둘 부

Of course I can use the words “this man” to designate now this man, now that man. But still on each occasion I mean them to designate just one man. The sentences of our everyday language leave a good deal to guesswork. It is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that enable us to make the right guess. The sentence I utter does not always contain everything that is necessary; a great deal has to be supplied by the context, by the gestures I make and the direction of my eyes. But a language that is intended for scientific employment must not leave anything to guesswork.

14) 이와 같이 주장한 중요한 이유는 Mill의 논의가 기본적으로 Hume이 주창한 이름이 사물에 대한 인간의 사고를 가리킨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분은 Russell이 제시하고 있는 명제의 개념은 앞 절(3.1)에서 제시한 Frege의 명제와는 분명히 차별화된 개념이라는 점이다. Russell에 의하면 명제는 언어적 요소가 아니며 명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지식(knowledge)이다. Russell(1912)의 명제는 사고(thought)의 대상이다. Russell(1912)은 두 종류의 지식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 가운데에 하나는 진리(truths)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물(things)에 대한 지식이다. 더불어 사물에 대한 지식은 면식(acquaintance)에 의한 것과 기술(description)에 의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면식에 의한 지식에 대해 살펴보자. Recanati(2012)가 지적한 것처럼, Russell에게 외부세계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사고(mind)와 사고 바깥의 대상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즉 면식(acquaintance)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Russell(1912: p.58)은 ‘이해가 가능한 모든 명제는 면식이 가능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야한다’는 면식의 원리(Principle of Acquaintance)로 정리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식론(epistemology) 자체가 지시이론의 전제가 된다고 이해할 수가 있다. 당연한 귀결로 Russell은 Frege의 의의와 지시의 이분법에 기반을 둔 이론을 거부한다. 지시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의의를 상정하는 이론은 직접적인 면식을 지시의 기반으로 삼는 이론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⁵⁾.

앞서서 Russell은 지식을 진리(truths)에 관한 것과 사물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사물에 관한 지식을 밝히는 방법은 면식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면식이 포함하는 범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매우 제한적이다. ‘백두산은 높이가 2000미터가 넘는다’라는 명제가 있다¹⁶⁾. Russell 식의 해석을 따르면, 지식은 사고와 명제 사이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Russell에게 이 명제를 믿는다는 것은 곧 ‘백두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백두산은 높이가 2000 미터가 넘는다’라는 명제는 당연히 면식이 가능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

15) 흔히 Frege와 Russell은 모두 기술주의(descriptivism)를 표방하였다는 이유로 동일선상에서 다룬다. 분명히 고유명사를 다루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명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의의에 대한 해석은 현격한 차이가 난다.

16) 이 명제는 Frege와 Russell 사이의 고유 명사가 포함된 명제에 대한 논쟁에서 사용된 명제를 염두에 두고 필자가 만든 명제이다. 원래의 명제는 “Mont Blanc is 4000 metres high”이다.

만, Russell의 주장은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난다.

문제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다. 한 사람이 백두산 봉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 봉우리가 백두산의 최고봉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봉우리(백두산)가 2000 미터가 넘는다’고 알지 못할 경우에 지식에 균열이 일어난다. 즉 하나의 대상을 면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은 높이가 2000 미터가 넘는다’는 명제를 믿기도 하고 동시에 믿지 않기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피하기 위해 Russell은 일반 고유명사는 위장한 한정 기술(definite descriptions)이라고 주장했다¹⁷⁾. 이러한 주장은 ‘백두산은 높이가 2000 미터가 넘는다’는 명제를 각각 다른 한정 기술로 치환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 중 하나는 ‘눈 앞에 보이는 산은 높이가 2000 미터가 넘는다’이고 나머지는 ‘백두산이라고 불리는 산은 2000미터가 넘는다’이다. 이렇게 한정기술로 치환을 하면 전자의 명제를 거짓으로 후자의 명제를 참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고유명사는 특정한 속성의 담지자로서 간접적으로만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Russell이 사물에 대한 지식은 면식(acquaintance)에 의한 것과 기술(description)에 의한 것으로 구분했다는 점을 떠올려 보자. 이 관점에서 본다면 백두산이란 고유명사는 면식에 의한 지식이 아니라 기술에 의한 지식에 속한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백두산은 높이가 2000 미터가 넘는다’라는 명제는 주어항과 술어항이 모두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일반명제가 된다.

그렇다면 Russell에게 진정한 면식의 대상은 무엇일까? 그는 오직 화시표 현만이 화자의 직접지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에 대한 차이를 기반으로 하여 Russell은 고유명사를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앞서 언급한 지식에 대한 구분을 바탕으로 기술적 지시-백두산, 산타클로스-와 논리적 고유명사-지시대명사(영어 ‘this’, ‘that’) 나 대명사(I)-로 나눈다. 앞서 논의한 Davies의 이론을 떠올려 보면, Russell은 화시의 내재적 내용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채 화시의 지시적 내용만이 실제 세계에서 곧장 명제의 일부

17) 한정 기술은 지시 표현으로써 기능하지 않고 양화구로서 기능을 한다. ‘The F is G’ 와 같은 단순한 주어-서술어 형식의 문장은 단칭명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문장의 양화 구조는 한정 기술을 재해석할 때에만 성립한다. ‘(Ex)((y)(Fy \rightarrow y=x) & Gx),’와 같은 형식만이 한정 기술의 본래의 의미라고 주장한 것이다

를 차지한다고 판단한 셈이다¹⁸). Russell에게 진정한 지시표현은 지시체가 담보된 것이고, 그는 지시 표현을 포함한 문장의 명제를 단칭명제(singular proposition)라고 불렀다. 단칭명제의 구성은 주어와 술어의 결합체이다. 단칭명제에서는 논리적 고유명사가 주어항이고 문장의 술어항이 속성(property)이다. Russell이 화시의 해석 혹은 명제에 실제 세계를 포함시키면서 얻은 효과는 무엇일까? 화시의 해석을 지시체에 귀속시킴으로써 화자와 청자의 소통을 안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문 (1)과 같이 화시의 지시체는 화자가 달라질 때마다 변화하지만, 화시의 지시체가 결정된 다음 단계에서는 화맥에서 비롯되는 가변성이 사라진다¹⁹).

그럼 Russell의 이론에서 합성성의 원리는 원활히 작동하는 것일까? 3.1에서 Frege가 화시를 합성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예외적인 언어 표현으로 판단한 근거는 화시의 고정 의미를 Frege의 명제 구성 요소인 의미로 포섭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화시를 명제의 구성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한편 Russell은 단칭명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화시를 명제의 구성 요소로 포함시키는 데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의 이론에서 화시는 주어항을 차지하고 문장의 술어의 내용이 속성(property)의 역할을 하여 단칭명제를 구성한다. 하지만 단칭명제가 합성성을 위배하는 시점은 그것이 진리값을 획득하는 단계이다. Russell은 화시가 언제나 지시체에 의해 의미를 획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칭명제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²⁰). 지시체가 담보되지 않는 명제는 당연히 단칭명제가 아니지만 그 진리값이 지시체가 담보되지 않아야 참이 되는 경우는 엄연히 존재한다. 이는 Russell 이론 내에서는 명백한 모순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칭명제를 바탕으로 한 화시의 해석은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²¹).

18) Russell의 기술에 대한 입장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기술과 면식은 전혀 다른 유형의 지식에 속하기 때문에 둘 사이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술은 언제나 논리적으로 양화사구의 형식을 보이고 면식의 본연의 역할은 지시를 하는 것이다.

19) Russell은 화시의 고정 의미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좀 더 진전된 형태의 지시주의의 입장은 다음 장에서 살펴계 될 Kaplan의 이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전화 자동응답기에 “저는 지금 집에 없습니디”라고 녹음이 되어 있는 경우를 떠올려 보자.

21) 이와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Davidson(2000)을 참조하기 바란다.

4. Kaplan의 이원적 화시이론

4.1 직접 지시(Direct reference)

Kaplan의 화시 이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그의 직접 지시(direct reference)²²⁾ 이론에 담겨져 있다. Kaplan(1989)은 화시는 그 지시체를 Frege가 제시한 의의(sense)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화맥으로부터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 잠시 3장의 내용을 돌이켜 보자. Frege의 명제 개념을 바탕으로 화시를 설명하기는 마땅치 않다. 그 이유는 화시의 고정의미를 Frege의 의의(sense)로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Frege는 ‘의의가 지시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화시의 고정의미만으로는 그 지시를 결정할 수가 없다. 왜일까? 화시 표현의 해석은 언제나 실제 세계의 지시체와 일치하는 과정(지시)을 통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화시의 고정의미는 아직 지시 대상이 확정되기 전 상태에 머무르기 때문에 화시의 온전한 의미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Kaplan은 Frege의 이론이 화시를 설명할 수 없는 근거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에 하나는 본고의 2.2에서 이미 제시한 바가 있는 화시의 인지적 역할(cognitive roles)이다. Kaplan은 *de se* 해석은 명제나 의의에 의해 나오는 해석이 아니라 오직 직접 지시에 의해서 기인하는 해석이라고 보았다.

Kaplan이 제시한 또 하나의 증거는 화시표현들이 화맥에서 결정되는 대상(화맥상의 화자, 시간, 공간)들을 지시하고 있으며 자연언어에서 화시 표현의 지시 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논리 연산자(logical operators)²³⁾들이 없다는 점이다.

22) Kaplan(1989: p.495)에게 직접지시는 고정성(rigidity)와는 구분이 되는 개념이다. 다음의 인용에서 그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표현을 직접지시라고 규정할 때 강조하고 싶은 의미특성은 그 표현이 모든 가능 세계에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모든 가능 세계에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방식이다”

23) 자연언어에서 부정(negation), 양태(modality) 그리고 조건절(conditionals) 등이 명제의 참과 거짓에 흔히 관여한다. 이들을 논리 연산자(logical operators)라 부른다.

(7) 보고된 상황: John says: 'I am a hero'

가. John_i says that he_i is a hero

나. *John_i says that I_i am a hero.

(7)과 같은 예문을 통해 Kaplan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자명하다. 영어의 화시표현은 피인용절에서 역시 그 해석이 화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Frege의 이론의 예측을 벗어나는 결과이다. 왜냐하면 Frege는 *say*와 같은 태도 동사 다음에 나오는 절은 언제나 명제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전제로 할 때에 예문 (7나)에서 *I*에 해당하는 해석은 명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John*이어야 한다. 하지만 예문 (7나)와 마찬가지로 영어의 경우에 피인용절에 나오는 화시표현은 화맥에 의해서 해석된다. Kaplan에 의하면 (7나)는 지시주의가 기술주의보다 자연언어 현상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화시표현의 지시체는 언어 표현인 고정의미(어휘의미)와 화맥에 의해 직접 결정된다. 결국에 화시 표현의 진리값(semantic value)은 지시(reference) 자체가 된다(Recanati 1990: p. 698). Kaplan은 화시를 포함한 명제를 Russell의 주장에 기대어 단칭명제(singular proposition)로 간주하였다. 3장에서 밝힌 대로, 단칭명제의 구성은 주어와 술어의 결합체이며 논리적 고유명사가 그 주어항을 차지하고 문장의 술어의 내용은 속성(property)이다. 그렇다면 Kaplan의 이론은 Russell의 주장의 재탕에 불과한 것일까? Kaplan이 그의 이론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이유는 기존의 Russell의 이론에서 배제되어 있던 화시의 고정의미까지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이론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Kaplan은 지금까지 본고에서 화시의 고정의미라고 일컫던 내용을 배역(character)라고 불렀다. 배역은 배타적으로 특정한 화맥에 의하여 지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 절에서는 Kaplan의 이론에서 화시가 해석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4.2 Kaplan의 화시 해석

Kaplan 이론에서 기존의 화시에 대한 해석과 차별화되며 진전된 측면은 화시의 의미를 배역(Character)과 내용(Content)로 나눈 점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그의 논의가 이원적 이론(two-dimensional theory)²⁴⁾의 성격을 띠게 한다. Kaplan의 이론이 이원적 이론에 속하는 이유는 배역(Character)이 화시의 해석 과정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화시의 배역(Character)에 해당하는 개념들은 화시표현의 고정의미(내재적 내용)에 해당한다. 즉 *발화의 화자*, *발화의 시점*, *발화의 장소* 등이 각각 *나*, *지금*, *여기*의 배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Kaplan의 *내용*은 전통적인 의미론에서 *명제*에 해당한다²⁵⁾. Kaplan은 배역과 내용을 둘로 구분함으로써, 배역에 해당하는 의미는 명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제한적인 역할만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화시의 지시대상이 결정되는 과정은 배역이 결정하지만, 명제에서 지시대상이 결정되는 순간 명제에서 배역에 해당하는 의미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우리는 왜 내재적 내용(intrinsic content)을 바탕으로 화시를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를 이해할 수 있다²⁶⁾. Kaplan의 이론에 의거해 (8가)와 (8나)를 도식화시키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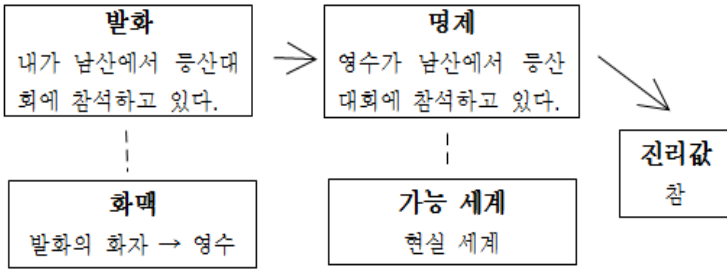
(8) 가. 내_i(영수)가 남산에서 등산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나. 팀장_i(영수)이 남산에서 등산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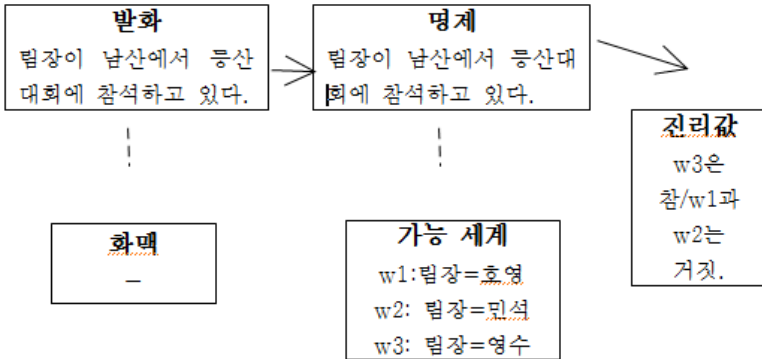
24) Karttunen & Peter(1979)의 전제 이론이 이원적 이론의 효시라고 알려져 있다. 그들이 이원론적 방법론을 제안한 동기는 전제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명제를 단언(assertion)과 전제(presupposition)로 분리시키고 둘 사이에 상호 작용을 배제하였다. Kaplan의 이론은 전형적인 이원론적 이론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25) 이점에 대해서는 Kaplan(1989: p.500)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ntent of a sentence in a given context is what has been traditionally called proposition"

26) Recanati (1990: p.698)에서 이 점은 매우 명쾌히 설명하고 있다. 영수가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영수는 한국인이다"가 참이어야 한다.



[그림1] Kaplan의 화시 이론에 기반한 해석 과정(8가)



[그림2] Kaplan의 화시 이론에 기반한 해석 과정(8나)

앞서 언급한 대로, Kaplan은 화시가 해석되는 과정을 배역(Character)과 내용(Content) 혹은 명제(Proposition)로 구분을 하였다. Kaplan은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 명제의 해석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Kaplan(1989: p.490)에 의하면, 배역은 언어 관습(convention)에 의해 결정되는 화시 표현의 의미이다. 배역은 항상 화맥으로부터 지시 대상(referent)을 결정하는 과정이다²⁷⁾. 즉 배역은 화맥으로부터 명제로의 함수이다. 한편 명제의

27) 화시의 지시체가 결정이 난 이후에는 고유명사와 마찬가지로 대상을 지시하는 역할 이외에 어떤 언어적 역할이 없다.

전통적인 역할과 부합하는 내용은 가능세계로부터 진리값을 결정하는 함수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그림1]은 화시표현이 화맥에 의해 해석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2]는 한정 기술이 배역을 건너뛰고 가능세계에 의해 해석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화시가 직접적으로 지시대상으로부터 해석된다는 주장은 화시의 해석에는 가능 세계(possible worlds)나 논리 연산자(logical operators)가 개입할 수 없는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화시를 해석하는 방식이 기존의 가능 세계를 기반으로 명제를 해석하는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는 증거는 양상논리 연산자(modal logical operators)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다.

(9) 가. 일 더하기 일은 이이다.

나. 절대적으로 일 더하기 일은 이이다.

(10) 가.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 절대적으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9가)와 같은 항진명제는 양상논리에서 ‘절대적으로’처럼 필연값을 갖는 논리 연산자(logical operators) 아래에서는 마찬가지로 항상 참이다. Kaplan(1986가)에 의하면 (10가)는 선행적으로 참으로 해석이 되지만, (10나)는 거짓이다. 그 원인은 (10가)의 해석은 화맥에 의해 이루어지고, (10나)의 해석은 가능 세계(possible worlds)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0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화자가 발화한 장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머무르는 세계를 상정해야 한다. 물론 그런 세계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10나)는 거짓이 된다.

5. 맥락주의 관점에서 화시의 해석

5.1 지시이론의 한계와 대안 모색

4장에서 살핀 Kaplan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화시의 해석이 화맥 혹은 화맥과 유사한 성격인 인용문에서만 가능하다는 점과 화시의 의미가 항상 화맥의 지시대상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시주의(referentialism)의 전통에 충실한 논의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화시가 직접적으로 지시대상으로부터 해석된다는 주장은 화시의 해석에는 가능 세계(possible worlds)나 논리 연산자(logical operators)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였다. Kaplan은 심지어 만약 그런 연산자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괴물(monster)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널리 알려진 대로 Kaplan의 예측은 범언어적 증거에 의해 부정이 되고 있다. 실제로 화시가 가리키는 대상이 발화 맥락이 아닌 언어 맥락을 포함하는 언어들(속속 보고되고 있다²⁸). 이 가운데에 가장 널리 알려진 Schlenker(1999)의 예를 보자.

(11) 보고된 상황: John says: 'I am a hero.'

가. Amharic (lit.): John_i says that I_i am a hero.

나. English: John_i says that he_i is a hero/*John_i says that I_i am a hero.

(Schlenker 1999: p.31)

(11)의 예문이 드러내는 바는 자명하다. 영어의 화시 표현은 피인용절에서 화시 표현들이 화맥에서 비롯된 채 해석이 되고 Amharic의 화시표현은 주절의 주어(主語)를 공지시하는 해석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문은 Kaplan의 화시의 해석이 언제나 직접 지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주장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Amharic의 예는 화시와 조응(anaphora)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예이다. 이와 관련해서 Heim(2005)은 영어에서 (11가)와 유사한 예를 근거로 삼아 Kaplan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Heim의 비판 가운데에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예문 (11가)와 같이 화시가 언어 맥락을 지시할 수 있다면, 화시는 여타 대명사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²⁹.

28) Anand & Nevins(2004)에서 Zazaki, Speas(1999)에서 Navajo, Deal(2008)에서 Nez Perce와 같은 언어들(言語)을 비롯해서 다수의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현상이다. 필자는 한국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관한 논의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즉 Kaplan의 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달리 화시표현의 해석이 화맥뿐만 아니라 언어 맥락에서 올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시주의가 언어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더불어 화시를 지시주의적 관점에서만 해석할 수 없는 이유로는 화시 자체에 포함된 기술적(descriptive) 내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다.

5.2 맥락주의 이론의 화시 해석

Reichenbach(1947: p.50)는 최초로 화시가 일종의 토큰 재귀적 기술(token-reflexive description)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³⁰. 먼저 화시의 고정 의미(conventional meaning)를 토큰을 상정하여 기술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 가. 나: 어떤 *나*의 토큰(token) *t*에 대해서 *t*의 지시체는 *t*를 생성시킨 화자이다.
 나. 나: 어떤 *너*의 토큰(token) *t*에 대해서 *t*의 지시체는 *t*를 생성시킨 청자이다.
 다. 여가: 어떤 *여기*의 토큰(token) *t*에 대해서 *t*의 지시체는 *t*를 생성시킨 장소이다.
 라. 오늘: 어떤 *오늘*의 토큰(token) *t*에 대해서 *t*의 지시체는 *t*를 생성시킨 날이다.

그렇다면 굳이 위와 같은 형식으로 화시를 기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화시 표현을 모두 토큰(token)을 상정하여 기술함으로써 화시가 의미를 획득하는 방식이 각각의 화맥에 의해 제한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화시의 의미가 획득되는 과정은 각각의 화맥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결정이 될 뿐이고 화맥이 달라지면 지시체가 얼마든지

29) Kaplan(1989)은 영어에서 ‘I, Here, Now, Actually’ 등의 표현을 순수화시(Pure Indexicals)라고 일컬으며 대명사와는 별개의 범주로 파악했다. Kaplan에 의하면, 순수화시는 ‘this, that’ 등이 흔히 동반하는 지시(pointing)의 개념을 동반하지 않고 화맥에서 지시 대상이나 시점 혹은 장소를 자동적으로 부여한다. 즉 지시를 위한 동작이나 의도가 필요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언어 표현의 어휘의미(고정의미)와 화맥이 직접적으로 화시 표현의 의미를 결정한다. Heim은 Kaplan이 순수화시를 별도의 범주로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30) 이러한 관점을 화시에 최초로 적용한 인물은 Reichenbach(1947)이고, Recanati(2004)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하지만 Recanati는 지시주의적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본고의 입장과는 다른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였다.

달라질 수 있다. 화시를 토큰 재귀적(token-reflexive) 관점에서 파악하게 되면, 화시의 정의 자체로부터 화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에 지시대상 (referential objects)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12) 선생님: 너₁는 맨 앞줄에 서고, 너₂는 그 다음에 서라.

민영₁: 네.

성희₂: 네.

예문 (12)에서 민영과 성희는 화자인 선생님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모두 청자이다. 하지만 너₁의 어휘의미만으로는 누가 너₁에 해당하고 누가 너₂에 해당하는가를 가려낼 길이 없다. 여기에서 대상을 가리키는 행위나 화자의 의도가 화시 표현의 해석에 개입할 당위성이 생긴다. 화자가 너라고 발화하는 순간 화시 표현의 대상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화자의 의도와 청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Nunberg(1993)에 의하면 화시의 해석에 토큰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는 지표(index)³¹⁾가 가지고 있는 가리킴의 속성(designated feature)에서 나온다³²⁾. 또 한 가지 Nunberg(1993)의 주장에서 주목할 만한 측면은 모든 화시 표현이 기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시 표현은 자체로 표현의 대상에 대한 정보-유생성(animacy), 성, 수 등-를 전달한다. 예를 들자면, 그녀라는 표현은 유생성과 여성성을 함께 나타낸다. 이상 두 가지 논리를 바탕으로 Nunberg는 화시 표현의 해석 과정을 세 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1. 화시적(deictic) 요소: 화시 표현의 발화로부터 화맥의 대상으로의 함수. *우리*와 *너*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지표를 가리킨다.
2. 분류적(classificatory) 요소: 유생성, 성, 수, 격 등을 포함한 기술적 해석. *우리는*

31) Reichenbach의 토큰(token)은 Nunberg의 지표(index)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는 Recanati(2005) 참조.

32) 지표(Index)와 지시(Reference)를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수적 효과는 *나*와 *우리*를 해석할 경우에, 두 표현은 동일한 지표(화자)를 가리키지만 상이한 지시대상을 가진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시어와 일반 명사가 결합한 표현들이 *사람*, *그 친구* 등을 정밀하게 연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유생성과 복수를 포함한다.

3. 관계적(relational) 요소: 지표의 화시 표현의 해석과의 일치여부에 대한 제약. 화자가 제외된 대상을 *우리*라고 지칭할 수 없다.

Nunberg(1993)의 화시 해석

Nunberg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든 화시표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순수 화시인 *나* 역시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화시표현과 마찬가지로 *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화시적 요소가 기본적으로 관여하지만, 그 해석은 필연적으로 단수와 유생성이라는 분류적 요소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지시 대상과 지표의 일치가 관계적 요소에 해당한다.

Nunberg(1993)의 맥락주의(contextualism)적 관점은 지시주의나 기술주의가 보여 주었던 한계를 일정 부분 분명하게 극복하였다. 이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맥락을 화시의 요소로 도입한 덕분에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화시를 해석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술주의가 직면한 화시 해석의 어려움은 명제가 균일한 요소(의의)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당위가 무너진 데에서 기인한다. Nunberg(1993: p.13)는 화시 내에 분류적 요소와 같은 기술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시 자체를 기술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능하기³³⁾ 때문에 화시를 포함한 명제나 기술(description)만으로 구성된 명제나 모두 Frege 이론 내에서의 명제라고 주장했다. 물론 Nunberg도 여전히 화시를 의의 개념 안에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명제의 구성 요소를 기술(description)로 규정함으로써 화시 표현에 합성성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했다. 화시의 해석 과정에 맥락을 도입한 또 하나의 성과는 지시주의 이론이 설명할 수 없었던 직접 지시의 범위를 벗어나는 화시의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해진 점이다. 지표(Index)는 화맥뿐만 아니라 언어 맥락도 가리킬 수 있으므로 (11가)를 해석하는 데에 제약이 없고 화시적 요소를 바탕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분류적 요소를 통해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시의 기술적 해석에 대한 제약이 사라진다.

33) Donnellan(1966)은 기술(description)을 각각 지시적 용법과 한정적(attributive)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Nunberg의 주장은 이것과 매우 흡사하다.

마지막으로 Nunberg의 화시 해석 과정이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는가를 확인해 보기로 하자. 맥락주의적 해석의 과정은 Kaplan의 이원론적 관점과 매우 유사하지만 지표로 대표되는 맥락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점이 차이가 난다. Kaplan은 화시가 해석되는 과정을 배역(Character)과 내용(Content)으로 구분을 하였다. 일단 이 과정이 맥락주의 이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자. Kaplan의 이론에서 배역이 결정되는 과정은 화시의 고정의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결정되었으나, Nunberg의 이론에서는 배역이 결정되는 과정은 고정의미와 맥락이 동시에 관여를 한다. 즉 배역은 화맥으로부터 결정되는 지표와 더불어 지시체와 가장 도드라지게 관계를 맺는 맥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경우에 배역은 고정의미와 맥락으로부터 명제로의 함수이다. 한편 여전히 내용은 가능세계로부터 진리값을 결정하는 함수이다. 맥락주의 이론에서는 합성성의 원리가 구성되는 방식이 언어내적인 요소들에서 한정된 부분의 합이라기보다는 맥락까지 포함한 요소들의 합이 된다.

6. 결론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맥락의 도입은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표현들이 여분, 설명력의 손실 또는 왜곡이 없이 맥락을 대신하는 표현들로 대체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본고의 관점에서 풀어보자면 맥락을 포함한 표현 역시 합성성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고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환언할 수 있다. 만약에 합성성의 원리가 맥락이 개입된 해석을 성공적으로 수용한다면 Frege의 언어에 관한 직관과 이론이 여전히 의미론의 핵심적인 의제로 간재함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rege의 의의 이론은 화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정이 필요했다. Mill과 Russell의 이론을 계승한 Kaplan은 이원적 이론을 도입하여 화시의 내재적 내용과 지시적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여전히 직접 지시이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Nunberg에 이르러서 비로소 화시에 대한 해석이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Recanati(1990)에서 주장하였듯이, 화시의 해석이 Frege가 주장하는 이원론

적인 의미 이론을 해치지 않는다면 명제에 화시의 의미가 일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 비록 직접 지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명제의 일부분으로 작동을 한다면, 명제의 해석에 있어서 지시적 요소가 Frege의 합성성의 원리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결국 합성성의 원리가 구성되는 방식이 기존의 언어내적인 요소들에서 한정된 부분의 합이라기보다는 맥락까지 포함한 요소들의 합이 합성성의 원리를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존의 합성성의 원리가 명제 단위 하나의 진리값을 결정하는 원리를 의미하였지만 확장된 합성성의 원리는 맥락을 포함한 담화 층위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로 이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민경모(2008), 한국어 지시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민경모(2011), Deixis 개념 정립에 관한 일고찰, 한국어 의미학 37, 27-52.
 박철우(2011), 국어 화시 표현의 유형, 한말연구 29, 141-164.
 Bach, Kent(1997), Indexical Content,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New York: Routledge, 639-640.
 Davidson, Matthew(2000), Direct Reference and Singular Proposition,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37.
 Davies, Martin(1982), Individuation and the Semantics of Demonstratives,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11, 287 - 310.
 Donnellan, K.(1966),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s, Philosophical Review 75, 281-304.
 Fodor, Jerry(1987), *Psychosemantics*,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Fodor, Jerry(2001), Language, Thought and Compositionality, *Mind & Language* 16, 1-15.
 Frege, Gottlob(1884), *The Foundations of Arithmetic*, translated from the German by JL Austin, 1980.
 Frege, Gottlob(1892). On sense and reference, in P.T. Geach and M.Black, eds.,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ottlob Frege*. Oxford: Blackwell (1952), 56-78.

- Frege, Gottlob(1918), 'Der Gedanke. Eine logische Untersuchung', Beitrage zur deutschen Idealismus 2, 58-77. In English as "The thought. A logical inquiry", translated by A.M. and Marcelle Quinton, in P. F. Strawson (Ed.), *Philosophical Logic*,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67.
- Frege, Gottlob(1923), *Gedankengefuge*, Beitrage zur Philosophie des Deutschen Idealismus, 36-51. Reprinted in Frege, *Logische Untersuchungen*, Vandenhoeck & Ruprecht, Gottingen 1976. In English as 'Compound thoughts', translated by R. Stoothoff, *Mind* 72: 1-17, 1963.
- Frege, Gottlob(1979), *Posthumous Writings*, Edited by H. Hermes, F. Kambartel & F. Kaulbach, Oxford, Blackwell.
- Jaszczolt, Kasia(2012), Context: Gricean intentions vs. two-dimensional semantics. In: R. Finkbeiner, J. Meibauer & P. B. Schumacher (eds). *What is Context? Linguistic Approaches and Challenges*. Amsterdam: John Benjamins, 81-103.
- Kaplan, David(1989), Demonstratives. In: J. Almog, J. Perry, and H. Wettstein (eds). *Theme from Kapl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81-563.
- Levinson, Stephen(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y, Robert(2006), Frege on Indexicals, *The Philosophical Review* 115 (4), 487-516.
- Mill, John Stuart(1843), *A System of Logic*, Ratiocinative and Inductive, London: Longmans.
- Nunberg, G. (1993), Indexicality and Deixi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1-43.
- Partee, Barbara(1984), Compositionality, In *Varieties of Formal Semantics*, ed. by Frank Landman & Frank Veltman, 281 - 312.
- Pagin, P. (2005), Compositionality and Context. In G. Preyer and G. Peter (eds.) *Contextualism in Philosophy :Knowledge, Meaning, and Truth*, Oxford: Clarendon Press,303-48.
- Pelletier, F. J.(2001), Did Frege Believe Frege's Principle ? *Journal of logic, Language and Information* 10, 87-114.
- Perry, John(1979), The problem of the essential indexical. *Nous* 13(1), 3-21.
- Perry, John(1977), Frege on Demonstratives, *The Philosophical Review* 86, 474-497.
- Perry, John (1997), Indexicals and Demonstratives. In B. Hale and C. Wright, eds., *A Companion to the Philosophy of Language*. Oxford: Blackwell, 586-612.
- Peirce, Charles (1955), *Philosophical Writings of Peirce* Edited by J. Buchler. New York: Dover Publications. Reprint of: J. Buchler (ed.). *The Philosophy of Peirce: Selected Writing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40.

- Recanati, Francois(2001), What is Said. *Synthese* 128, 75-91.
- Recanati, Francois(2004), *Literal Mea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canati, Francois(2005). Literalism and Contextualism: Some Varieties“, in Gerhard Preyer and Georg Peter (eds.), *Contextualism in Philosophy: Knowledge, Meaning, and Tru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71 - 196.
- Russell, Bertrand(1905), *On Denoting*, Reprinted in R. C. Marsh, ed., *Logic and Knowledg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56.
- Russell, Bertrand (1912), *The Problems of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ussell, Bertrand(1917), *Knowledge by Acquaintance and Knowledge by Description*, In *Mysticism and Logic*, paperback edition. Garden City, NY: Doubleday, 1957.
- Russell, Bertrand(1919),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Philosoph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Schlenker, Philippe(1999), *Propositional Attitudes and Indexicality: A Cross-Categorial Approach*. Ph.D. Dissertation. MIT.
- Schlenker, Philippe(2003), A plea for monster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6, 29-120.
- Searle, John (1984). *Intention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진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HK사업단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
전자 우편: borgesk@utexas.edu

원고 접수일: 2014년 8월 11일

원고 수정일: 2014년 9월 19일

게재 확정일: 2014년 9월 21일